

주일 대표기도 예시문 3.

[찬양]

사랑이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쉬지 않으시고 온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추운 날씨 속에서 나의 편함과 안락함을 누리기 보다 계절의 변화속에서 더욱 주님의 질서를 발견하고 인정하여 주님이 베푸신 모든 것에 기쁨과 감사로 고백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회개]

하나님 지난 2천여 년 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과 다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의 권능을 통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속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부끄럽게도 하나님 앞에서 한 없이 죄악 된 모습을 좇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 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날마다 토해내며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약함을 감추기에 바쁘고 경건의 모양만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교만과 죄악 된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낮아지고 세상 앞에 섬기는 자로 살아갈 용기와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경건의 모양만이 아닌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 이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과 감격을 더 깊이 누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를 위한 간구]

하나님, 여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갖고 주님 앞에 모인 백성을 기억하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에 드러나고 있는 죄악 된 모습과 상처의 현장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을 압니다. 공의와 사랑으로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지혜롭게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분열되어 서로를 비방하는 모든 입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어 이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화와 소망이 가득한 그리스도의 계절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이들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심겨지게 하시고 그 가슴으로 세상에 나아가 담대함으로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한 간구]

사랑하는 주님 또한 우리 사랑하는 송원교회가 하나님의 사랑받기 합당한 교회로 계속해서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미소 짓게 만드는 교회, 성도들을 평안케 하는 교회, 세상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어 이 시대의 세속적 흐름을 거스르면서도 교회에 참된 소망이 있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과는 다르지만 세상이 닮고 싶어하고 세상의 발길이 흘러 들어오며 누구에게나 필요를 베풀 수 있는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목사님을 위한 간구]

또한 하나님께서 송원교회를 위해 세우신 담임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으로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의 귀를 열어 진리의 말씀을 마음 판에 새기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육신의 강건함과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때 모든 환경과 상황이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감싸시는 은총으로 덧입히사 하나님의 보호인도하심 아래 거하게 하옵소서.

원로목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어 놓여준 사역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그 때마다 주시는 깨닫는 은혜로 필요한 자리에 필요를 공급할 통로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구석구석 전하여지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사모하는 심령들이 곳곳마다 일어서는 부흥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송영]

이 시간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부족한 종의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다스리시며 우리의 부활 소망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